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8〉

부처도 일체중생을 위해 번뇌

선사는 항상 본분사로서 사람을 지도

불교는 마음으로 시작해 마음으로 끝난다

조주 스님이 상당하여 설법했다.

“이 일은 명주(明珠)가 손바닥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야만인(胡人)이 오면 야만인이 나타나고 한인(漢人)이 오면 한인이 나타난다. 노승은 한 가닥의 풀(草)을 가지고 1장 6척의 황금신(黃金身)을 만들어 쓸 수 있고 1장 6척의 황금신을 가지고 한 가닥의 풀을 만들어 쓸 수도 있다. 부처가 곧 번뇌이고 번뇌가 곧 부처이다.”

師上堂云 此事如明珠在掌 胡來胡現 漢來漢現 老僧把一支草 作丈六金身用 把丈六金身 作一支草用 佛卽是煩惱 煩惱卽是佛

이 일이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도(道)의 심층부를 한번 깨달으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손바닥 위에서 명주를 굴리는 것과 같아서 능수능란한 귀재가 된다. 따라서 거친 사람이 오면 거친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고귀한 사람이 오면 고귀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 버려서 모두 파악이 된다는 것이다.

선사는 만일 선(禪)에 대한 견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해도 척 하고 한마디 들어보면 그가 어느 경지에 있는지 금방 알아버린다. 따라서 사람과 대담하는데 별스럽지 않는 풀 하나를 가지고도 상대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무기로 둔갑시켜 혼절시킬 수 있고, 혹은 귀한 보도(寶刀)와 같이 뛰어난 문장도 한 낱 휴지처럼 구개에 내다버리므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에 자유롭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이 일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한 마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사람의 표정만 보고도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훤히 알아버린다.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능력은 누구나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 중생은 그 재능이 묻혀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 차별은 없고 평등만 존재한다.

학승이 물었다.

“부처는 누구를 위해 번뇌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번뇌한다.”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면할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면하여 뭘 하겠는가?”

問 佛與誰人爲煩惱

師云 與一切人爲煩惱

云 如何勉得

師云 用免作麽

부처가 번뇌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고 돌이나 나무일 것이다. 부처도 일체 중생을 위해 번뇌한다. 선사가 번뇌가 없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고 돌이나 나무일 것이다. 불법은 사람을 무정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부처나 선사가 번뇌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진정한 부처라면 환경 문제에 대해 뜻있는 사람과 함께 고민할 것이고, 진정한 선사(禪師)라면 지구촌의 이상 기온에 대해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번뇌할 것이다.

불법은 지구 위에 있는 뭇 생명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한 진리를 설한 것이다.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삶을 추구하는 종교는 종교로서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종교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장차 보통 사람과 함께 끝까지 호흡하면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종교는 언제까지나 살아남을 것이다.

조주 스님이 상당하여 설법했다.

“노승은 이곳에서 본분사(本分事)로서 학인을 지도한다. 만약 노승보고 그들의 근기에 맞게 지도하라 한다면 3승 12분교로써 지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뒤에 솜씨 좋은 한 선지식을 만난다면 노승이 그들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다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본분사로서 그를 지도할 뿐이다.”

師示衆云 老僧此間 卽以本分事接人 若敎老僧隨伊根機接人 自有三乘十二分敎 接他了也 若是不會 是誰過歟 已後遇著作家漢也道 老僧不辜他 但有人間 以本分事接人

선사는 항상 본분사로서 사람을 지도한다. 본분사라는 것은 사람의 근본과 우주의 근원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남종의 선법이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근원을 꿰뚫게 하는 선적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역사적으로 교종만 우뚝 서 있었다면 불교는 오늘날 미신과 같은 종교로 인식돼버렸을 것이다.

선사는 근기에 상관없이 항상 본분사로서 사람을 제도한다. 만약 사람의 근기에만 맞추어 제도하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교법을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법해서는 부처님의 올바른 법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을 중시하는 교종에서 화엄경의 ‘중생이 곧 부처’라는 진리를 어떻게 교리로써 전달할 것인가? 선은 가지를 쳐내고 바로 들어가게 하여 사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대승의 교리에 직접 부합하게 된다. 따라서 선법이야말로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최적절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묻는 자가 있어야 답도 있을 것이고 본분사로서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사는 화두와 격외구 등을 들어 설법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묻게 만드는 것이다. 묻는 순간 선사의 대답은 곧 묻는 자의 뇌리를 때리게 되므로 깨달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즉심(卽心)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학인의 상량(商量:헤아림)이 허용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즉심을 놔두고 도대체 무엇을 상량하겠다는 것인가?”

問 從上至今卽心是佛 不卽心還許學人商量也無

師云 卽心且置 商量箇什麽

옛날부터 불교는 마음에 대한 법문을 해왔다. 마음이 부처, 중생이 부처라는 말은 모두 마음을 두고 한 말이다. 마음은 원래 편안하고 태평하다. 이 평온한 마음은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나온 천부적인 재질이다. 때문에 불조(佛祖)가 수없이 마음이 부처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면서 부처가 되기 위해 닦지 말고 그 평온한 마음만을 잘 간직하기만 하라고 말했던 것이다.

마음 외의 것에 대해서는 따로 불자들이 상량할 것은 없다. 인생사 희비애락이 한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마음이 한번 쉬어지면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편안하면 땅바닥에 누울지라도 편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천당에 가도 불편할 뿐이다”라고 설법하지 않았는가. 인간사가 다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을 제외하고 더 이상 무엇을 상량하고 연구할 것이 또 있단 말인가.

불교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낸다. 일단 마음이 한번 편안해져서 일평생 동요가 없다면 그 사람이 곧 금강불퇴지(金剛不退地)의 지혜를 얻은 부처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23 〈끝〉

안을 비춰 각관을 밝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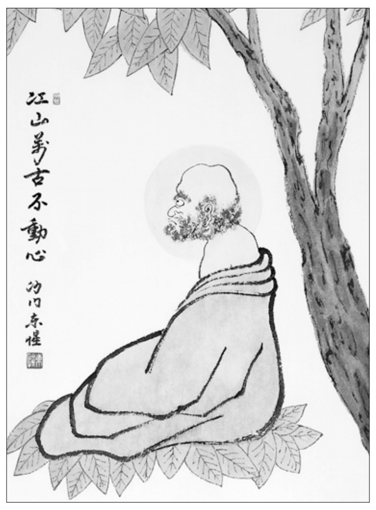
#망령되이 불상이나 절을 조성하지 말아라

요즘 천박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직 형상 세우는 것을 공덕으로 알고 재물을 많이 허비하며 물이나 육지의 중생을 많이 상하게 하며 망령되이 불상과 탑을 세우느라. 헛되이 사람들을 수고스럽게 하여 나무나 진흙을 쌓아 올리고 울긋불긋 단청을 하는데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더라도 자기를 손해나게 하고 남도 미혹하게 하는 것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니 어떻게 깨닫겠느냐. 유위법을 보면 끈질기게 집착을 하는데 무상(無相)을 말해주면 멍청하여지니 바보 같구나.

또 세상의 조그마한 즐거움을 욕심내느라 다가오는 세상의 큰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닦고 배우는 것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며, 올바른 것을 등지고 삿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복을 얻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니라.

[원문]

竊見今時淺識 唯知立相爲功 廣費財寶 多傷水陸 妄營像塔 虛役人功 積木壘泥 塗靑畵綵 傾心盡力 損己迷他 未解慙愧 何曾覺悟 見有爲則勤勤愛着 說無相則兀兀如迷 且貪世上之小樂 不覺當來之大苦 此之修學 徒自疲勞背正歸邪 言獲福



寒山 · 拾得 · 豊于 三聖圖 · 69x 46cm. 동성 스님 作.

[해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지구와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앙도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 겪는 일이며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성현들은 사람들이 마음 닦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대형 불사로 많은 미물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될 지도 모르는데 언제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현대물리학에서는 원자가 1초에 99억 번을 진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제행무상(諸行無常)을 말씀 하시고 일체 현상계는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허깨비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무상한 현상계에 집착을 하는 중생에게 무상의 이치를 설명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추구하는 오욕락(五欲樂)은 일시적인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집착 하고, 그로인해 자신이 윤회의 굴레에 속박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모든 물질세계는 변해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 닦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사로운 불사에 집착해 그것이 복을 짓는 일이라 하면서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일이 되고 복을 얻는다는 것이 거짓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관(觀)하도록 당부하노라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비출 수만 있다면 각관(覺觀: 마음의 조악한 작용과 자세한 작용)이 항상 밝으리라. 삼독의 마음을 끊어서 영원히 없어지게 하고 육적의 문을 굳게 닫아서 번뇌가 침입하여 방해하거나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면 항하의 모래 수 같은 공덕과 온갖 장엄과 한량없는 법문을 낱낱이 성취할 것이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만큼이나 가까운 것이니라. 깨달음은 잠깐 사이에 있는데 어찌하여 흰머리가 되도록 수고하리요. 진실한 법문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데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느냐. 간단하게나마 마음 관(觀)하는 것으로 그 일부분을 밝히노라.

[원문]

但能攝心內照 覺觀常明 絶三毒心 永使消亡 閉六賊門 不令侵擾 恒沙功德 種種莊嚴 無量法門 一一成就 超凡證聖 目擊非遙 悟在須臾何煩皓首 眞門幽秘 寧可具陣 略說觀心 詳其小分

[해설]

일체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고 마음을 집중해 안과 밖의 경계가 끊어지면 본래 진여당체가 드러나 밝아집니다.

탐 · 진 · 치 삼독심(三毒心)은 아직 우리가 진여당체와 하나가 되지 못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과거 무수한 삶을 통해 익혀온 업력이기 때문에 업력을 녹이는 수행을 통해서만 없앨 수 있으며 끊임없는 정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적의 문을 굳게 닫아 번뇌가 침입해 방해하거나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면 마음이 여섯 가지 기관을 통해 육경 대상을 접하면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 안심경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두나 염불 기타수행을 통해서 정진한다면 우주와 하나가 되어 무한한 공덕과 우주를 마음대로 잡아 쓸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며 영원히 성인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고 정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깨닫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이니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오직 정진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은 무상한 것인데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하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마음으로 게으름을 피우면 안됩니다.

실상은 마음으로 되어 있기에 안과 밖이 없으며 어디 있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문자나 언어로 표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성인이라 하더라도 입을 뗄 수 없는 자리이기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종 도 를 모 십 니 다

아름답고 뜻 있는 삶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승려(비구, 비구니) 및 재가불자 분들께서는 모두 연락바랍니다.

범음 · 범패 염불의식을

수강할 학인스님, 재가불자를 모집합니다

- 초활향 기초소리부터 제반의식 모두를 수학 전수합니다 -

◆ 상주권공반 (초급) ········ 1년

◆ 각 대 반 (중급) ········ 1년

◆ 영 산 반 (상급) ········ 2년

●개강일 : 6월 15일(화) 오후 3시 · 매주 화요일 수업

별도 특강도 있습니다

종단 입종절차 문의는 총무원으로 직접 연락바랍니다.

총무원 주소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224번지

연락처 : 070-8876-2848, 054) 974-4725 / 팩스 054) 974-4726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율종 총무원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 입니다. 기존 판매된 「Ⅰ · Ⅱ · Ⅲ · 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신뢰성’이 담보 되어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 만을 구입 교환 하실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편 증보개정 되어 가히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학습서 ‘효사육임강론’ 上 · 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구입 · 승인 · 교환 안내 : 051) 908-8683 담당 : 진 민 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